

英 브렉시트 후 퇴보 “후회막심” 브레그렛 등장

(bregret)

2016년 이후 기업투자 손실 290억 파운드 달해 경제난 심화, 지난해부터 “남을 걸” 유행어로 번져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영란은행)이 2016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영국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나단 해스켈 BOE 통화정책위원회(MPC)은 2016년 이후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기업 투자 부문에서 손실을 입은 규모가 290억 파운드(약 45조 원)로 GDP의 1.3%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가구당 손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0파운드라고 13일(현지시간) 가디언은 보도했다.

해스켈 위원회는 영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BOE의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BOE의 최고의결기구인 통화정책위원회는 BOE 총재 1명·부총재 3명·금융시장담당 및 조사담당 집행이사 1명 등 BOE 내부 인사 5명과 비상한 외부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스켈 위원회는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 몇 년 동안 민간 부문에의 투자가 “그 속도에서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브렉시트에 따른 여파로 영국은 이전 6년의 투자 추세에 뒤처지기 시작했고, 다른 주요 산업 경제와 비교했을 때 생산성

이 큰 격차로 떨어지며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해스켈 위원회는 연구를 통해 브렉시트 투표와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EU 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탈퇴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이 영국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과거 브렉시트에 찬성했던 마이클 고브 주택부 장관 외 브렉시트를 반대했던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의 그림자 내각(정권 교체 시 대체 내각) 고위 구성원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지난해 비공식적으로 정당한 영수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EU 탈퇴 이후의 영국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영국의 국민소득 손실액 또는 국민총생산(GNP)의 손실을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는 무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BOE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경제 전망에서는 영국의 현재 무역 수준을 2019년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떠나기 전과 비교하면 2026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2%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예측기관인 예산책임청(OBR)은 “브렉시트 상태가 지속되면 영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를 후회하는 이른바 ‘브레그렛(Bregret)’이 우세 여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동해방동맹

국이 EU에 잔류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다 장기적으로 영국의 GDP는 4%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스켈 위원회는 장기적인 브렉시트에 따른 GDP 손실을 연구하기 위해 무역 지표 대신 기업투자를 척도로 사용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해스켈 위원회는 웹사이트 오버셋과 인터뷰에서 “2016년 브렉시트 주민투표 이후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투자가 증가한 것

과 비교해 영국은 정체를 면치 못해 실제로는 생산성 손실이 GDP의 1.3%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6년 생산성 손실 총액은 GDP의 2.8%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영국에서는 브레그렛(Bregret)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브렉시트와 후회하다(regret)를 합친 용어로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이를 후

회하는 여론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한 2016년 당시 EU 탈퇴에 찬성한 국민은 51.9%, 반대는 48.1%로 사실상 근소한 차로 브렉시트가 결정됐다. 이후 여론은 4년간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여름부터는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는 여론이 더 우세해지면서 브레그렛이란 단어가 여러 언론과 SNS를 통해 유행어로 번지고 있다.

정은영 기자 eyjang@skyedaily.com

맨해튼, 재택 근무 도입 사무실 출근 30% 감소

상권 지출 1인당 연 4600달러↓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원격재택 근무가 병행되는 등 최근 출퇴근 문화가 유연해졌다. 뉴욕시는 원격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직장인이 몰려 있는 맨해튼 사무실로 출근하는 시간이 팬데믹 이전보다 약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NBC 뉴욕은 이곳 직장인이 회사로 출근하는 일수가 줄어들자 인근 식당·쇼핑몰·엔터테인먼트 등의 상권에서 지출하는 비용도 감소해 1인당 연간 4700달러(약 590만 원)를 절약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시가 지난달 고용주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맨해튼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52%만이 평일에 사무실로 출근하고, 평일에 풀타임으로 모두 사무실로 출근하는 근로자는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사무실 출근 일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30% 감소했다. 구직물류 플랫폼 엑스랩스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주로 화~목 3일은 사무실로 연속 출근하고, 월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원격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일별 유동 인구의 변화에 따라 맨해튼 지역에서 레스토랑·카페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음료 업체들의 매출도 이에 비례해 증감하고 있다.

원격 근무가 확대되면서 뉴욕시는 연간 124억 달러의 손실이 지역경제에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인의 출근 횟수가 줄어들면서 출퇴근 시대 대중교통 이용률이 감소하고, 뉴욕에서 영업중인 식당·오락시설의 매출도 과거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욕에서 정수하는 세수가 감소하고 대중교통 운행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감소해 예산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은영 기자 eyjang@skyedaily.com

인도·베트남·중국 亞항공업 급성장 “공항 규모 키워라”

세계 상위 10위 건설 중 5개 차지… 中 상하이 157억 달러 투자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인 글로벌데이터에 의하면 지난해 건설을 시작한 세계의 공항 프로젝트 수는 71개였다. 세계 71개 공항 건설 프로젝트의 비용은 약 500억 달러(약 63조4757억 원)에 달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데이터분석 매체인 공항 테크놀리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서 건설 비용이 가장 높았던 곳은 중국 상하이의 푸둥 국제공항이었다.

상하이 공항청은 2022년 11월부터 푸둥 국제공항의 관제탑 지역과 통로를 확장하

기 위해 제3 터미널의 건설을 시작했다. 건설 비용은 157억 달러로 발표됐다.

푸둥 국제공항의 제3 터미널 건설 계획은 공항의 4번째 확장 프로젝트다. 제3 터미널의 계획 규모는 119만㎡로 연간 승객 5000만 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0년 터미널이 완공되면 푸둥 국제공항은 연간 승객 1억3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터미널 확장 공사에는 통합 이동센터·공항 주차장·화물센터·승객 숙박시설 등의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다.



중국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에서 약 40km 떨어진 훙차오 국제공항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푸둥 국제공항의 제3 터미널은 향후 공항 이용객들이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베이징 지하철 수도공항선 도시철도 2호선과 21호선·상하이 동역 등과 연

결할 계획이다.

푸둥 국제공항의 확장 프로젝트는 양쯔강 삼각주의 교통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상하이를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199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푸둥 국제공항은 중국 항공사인 상하이항공·중국국제항공·중국 동방항공의 주요 허브 공항이다.

한편 지난해 건설이 추진된 공항 프로젝트는 71개로 2021년 159개와 비교해 44%에 불과했다. 2021년 세계 공항 건설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100억 파운드(약 169조3617억 원)라고 공항테크놀리지는 보도했다.

민서연 기자 symin@skyedaily.com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40년간 한결같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람과 기술을 이어온 40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0년간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숙련기술장려, 해외취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사람과 기술을 이어왔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개발(HRD) 기관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